

메시지 6

그리스도 안의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

성경: 고후 4:4, 6-7, 3:18, 마 17:2, 엡 5:8-9, 계 22:4상, 5하, 21:23

- I.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고후 4:4.
- A. 이 시대의 신인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1. 눈멀거나 너울로 가려진 이들은 자신이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은 사탄이다.
 2.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
 3.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다.
- B.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빛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 히 1:3, 고후 4:6.
- C.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 딤후 1:11.
- D.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찬송을 받으신다 — 히 1:3, 엡 1:3, 6, 12, 14.
- II.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고후 4:6.
- A.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해주는 빛 비춤으로 귀결된다 — 고후 4:4, 6.
- B.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한 인격이고, 이 인격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후 4:4, 6, 마 17:2.
- C.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행 7:2, 히 1:3.
- D.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더 비추실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더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속으로 비취 들어오고, 그런 다음 우리 속에서부터 비취 나간다 — 요 1:18, 마 5:16, 빌 2:15.
- III.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고후 4:7.
- A.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 믿는 이들은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다 — 고후 4:6-7.
1.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는 것 곧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보배, 곧 모든 것을 포함

하신 그리스도를 가져온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시다 — 고후 4:4, 6-7, 골 2:9, 3:4, 11, 고전 15:45하.

2. 지극히 귀한 이 보배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다 — 빌 4:13, 고후 13:5, 4:7.

B. 지극히 귀한 이 보배로 말미암아 질그릇들이 우리가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탁월한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고후 3:6, 1:9, 4:7.

C. 우리의 비춤을 통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소중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분배 받아 소유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들도 지극히 귀한 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될 것이다 — 고후 4:4, 6-7.

IV.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고후 3:18.

A.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 자신과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계신다 — 눅 24:46, 히 2:9, 고후 3:18, 롬 8:29.

C.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이다 — 고후 3:18.

V.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엡 5:8.

A.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 요일 1:5, 엡 5:8, 요 12:36.

B.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다 — 마 5:14, 요일 1:5.

C.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다 — 요일 1:7.

D.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한다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묘사된 열매를 맺을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재로 표현되실 수 있도록,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하며 표현에서 참되어야 한다.

2. 선과 의와 참된 것 안에 있는 빛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a. 선(善)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마 19:17.

b. 의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 롬 5:17-18, 21.

c. 빛의 열매의 표현인 참된 것은 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실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 요 14:17, 16:13.

VI.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 22:4상, 5하.

A.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누리게 될 삼일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 계 22:4상.

B. 어린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빛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비추심 아래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 계 22:5하, 21:23.